

모든것의 주인은 인민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방도시에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된 병원을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병원의 어느한 치료실에는 보기 드문 최신형 종합치료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커다란 만족속에 의료설비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이 설비는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수반급들이나 리용하고 있는 설비라는데 대하여 설명해드리면서 그래서 그것을 들여올 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조선에서는 어떻게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들여가는가고 하며 종시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러면 야단났구만, 우리 나라에는 왕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고,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는가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였건만 이 세상 모든것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우에는 그 무엇도 놓일수 없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역사의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지는 뜻깊은 순간이였다.